

'22년 경찰특공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전술(남·여), 폭발물분석·처리 -

목 차

【형 법】	-----	1
【형사소송법】	-----	4
【경 찰 학】	-----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 형 법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 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은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④ ‘음란’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를 의미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 범죄의 소추조건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을 올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 ②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에서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 ④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시술 직후 쇼크 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 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O) ㉡(X) ㉢(O) ㉣(X)
- ② ㉠(O) ㉡(O) ㉢(X) ㉣(O)
- ③ ㉠(X) ㉡(O) ㉢(X) ㉣(X)
- ④ ㉠(X) ㉡(X) ㉢(O) ㉣(O)

5.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결정에 의함)

-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②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③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폭행치상, 강간치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263조는 검사의 거증책임 부담원칙의 예외로서 피고인에게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거증책임이 있다.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된다.
- ②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샷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행위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②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부하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 ③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목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경우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8.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②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 ④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9.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③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벌적 불능범이 성립한다.
- ④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면,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에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이탈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11.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
- ②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 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③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④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②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③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13.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 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14.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 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무의 승계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5.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중중, 배우자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6.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②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 ④ 타인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17.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뇌물죄에 있어서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③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청탁이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 받았더라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18. 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 ②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불충분한 수사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③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9. 위증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④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에서의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포함된다.
- ②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믿었다 할지라도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과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결정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
- ④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2. 합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들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한다.
-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합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합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뺏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합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며,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에 의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자를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다.

4.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 ②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 ③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 ④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5.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 나중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고소에서 적용되는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고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범죄사실에도 자수의 효력이 있다.
- ③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제3자를 통한 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범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처벌받는 경우, 범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은 범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 직원, 사용자 등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7.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③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④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그를 연행한 경우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8.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③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④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9.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10.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집행현장 사정상 출력이나 파일 복사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 이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11.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
 -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는 ‘혐의 없음’에 해당한다.
 -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죄가 안 됨’에 해당한다.
 - ④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혐의 없음’에 해당한다.

12.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는 가능하지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 ① 보석청구 ② 구속취소청구
 - ③ 상소제기 ④ 증거보전청구

13.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 ②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④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했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④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 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6.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③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17. 기관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후 다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 및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관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18.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 ㉡ 뇌물죄에서 수뢰액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 |
|---|

- ① ㉠(X) ㉡(O) ㉢(X) ㉣(X) ② ㉠(O) ㉡(O) ㉢(X) ㉣(O)
- ③ ㉠(O) ㉡(X) ㉢(O) ㉣(X) ④ ㉠(X) ㉡(X) ㉢(O) ㉣(X)

19.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구류, 과료에 한정된다.
- ②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경 찰 학】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분류의 기준으로는 경찰의 목적과 임무, 경찰권 발동의 시점, 권한과 책임의 소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보안(치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는 독립된 고유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 ④ 사법경찰은 흔히 수사경찰이라 부르는 것을 말하며 경찰기관의 사법경찰관 등이 해당된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개인과는 관련이 없다.
-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 ③ 개개의 경우 실제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를 추상적 위협이라고 한다.
- ④ 경찰권 개입요건을 충족시키는 위협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3. 경찰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력적 수단으로는 명령과 강제를 들 수 있다.
- ② 오늘날 경찰임무 달성을 위해 권력적 수단에 의한 경찰활동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 ③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④ 비권력적 수단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조직법적 근거만 있어도 가능하다.

4. 경찰법의 법원으로 성문법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② 조리 ③ 조약 ④ 국제법규

5. 다음 중 경찰부패 원인으로 제시한 구조원인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입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임 동료들에 의해 부패한 조직 전통 속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②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한 월슨이 내린 결론으로 시카고 시민들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 ③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 ④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사례·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6. 다음 중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치안서비스는 일종의 사회적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제공받아야 한다.
- ②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치안을 경찰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이 거기에 부응해야 한다.
- ③ 경찰은 상호협력의 팀워크(teamwork)를 고려하지 않고 경찰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 ④ 경찰활동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으므로 경찰은 이 목적을 행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7.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②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다.
- ③ 통솔범위의 원리는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정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로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원리이다.
- ④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임무를 나누어서 부과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제란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능력·자격·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 ② 직위분류제란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직무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임용·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③ 계급제의 단점은 일반행정가를 양성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 ④ 직위분류제의 장점은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고 직업 공무원제도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행동은 욕구의 결핍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 ② 인간의 욕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5계층의 욕구가 순차적·연속적으로 발현하지만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인간의 욕구단계이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이며 최하위 욕구는 '안전 욕구'이다.
- ④ 타인의 인정·존중·신망을 받으려는 욕구는 존경(주체)욕구이다.

10.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내부통제 : 감사관제도, 훈령권, 행정소송
- ② 외부통제 : 입법권, 예산 결산권, 민중 통제
- ③ 사전통제 : 입법권, 예산 결산권, 공청회
- ④ 사후통제 : 국정 감사·조사권, 청문, 행정심판

1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인 곳
- ④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12. 다음 정보의 가치(질적요건, 특성)로 제시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실성 ② 주관성 ③ 신용가치성 ④ 비이전성

13. 다음 중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② 합리적 선택이론은 억제이론과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 ③ 환경범죄학에서는 환경적 요소의 변화보다는 범죄자의 범행동기 약화에 중점을 두고 범죄예방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고전학파의 억제이론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개인보다 사회에 두고 사회방위를 통해 범죄예방을 달성하고자 한다.

14.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변화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경찰법」 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

- ①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5.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16. 경찰행정기관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관청 - 행정주체의 법률상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
- ② 자문기관 - 행정청으로부터 자문을 요청 받아 법적 구속력 있는 자문을 제시하는 기관
- ③ 의결기관 - 행정관청의 의사를 구속하는 의결을 행하는 행정기관
- ④ 집행기관 -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력을 행사하는 기관

17. 다음 중 경찰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당하는 징계처분이다.
- ② 해임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나 그 후에는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징계처분이다.
-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처분이다.
- ④ 정직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

18. 경찰공무원 임용과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② 경정 이하(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제외)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 ③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④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은 제외)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9.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과에는 일반·수사·보안·특수경과가 있다.
- ② 특수경과에는 항공경과와 정보통신경과가 있다.
- ③ 일반·수사경과는 총경 이하,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다.
- ④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2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